

## 남부 가뭄, 해 넘긴다... “내년 2월까지 강수량부족” 전망

**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남부 강수량 평년의 71.4%뿐  
 용수 확보·물 절약 홍보 추진**

내년 2월까지의 남부 지방의 기상 가뭄이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라 정부 판단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이 13일 공동 발표한 ‘12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전국의 누적 강수량은 931.4mm로 평년의 94.0% 수준이다. 기간을 넓혀 최근 1년간 누적 강수량은 1131.8mm로 평년의 85.4% 수준으로 낮아진다. 지역별로는 중부 지방의 최근 6개월간 누적 강수량은 1273.3mm(125.3%)로 평년 수준을 웃돈다. 반면 남부 지방 강수량은 684.5mm로 평년의 71.4%에 그쳐 기상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전남 62.2%(596.5mm), 경남 67.3%(714.3mm), 전북 71.3%(703.1mm), 경북 81.5%(699.0mm)이다. 더욱이 내년 2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돼 걱정스럽다. 평년 강수량은 12월 19.8~28.6mm, 1월 17.4~26.8mm, 2월 27.5~44.9mm였다. 전국의 저수지와 댐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치에 근접한다. 그러나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지난 8일 기준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8.0%로 평년의 96.6% 수준이다. 반면 강수량이 적은 전남(48.8%)과 전북(53.8%) 지역은 평년의 77%대에 머문다. 그나마 밭 작물의 용수 수요가 적은 겨울철이라 물 부족 어려

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 댐 20곳의 저수율은 평년의 99.6%, 용수댐 14곳의 경우 평년의 96.1% 수준이다. 다만 전남 주암·수어·평립댐과 전북 섬진강댐은 저수율이 낮아 댐 관리기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타 수원에서 대체 공급이 가능해 가뭄 예·경보 기준으로는 ‘경계’ 단계다. 경남의 합천댐은 ‘관심’ 단계를 발령해 관리 중이다. 다목적댐과 용수댐은 강우 부족이 지속되더라도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가뭄 위기관리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선제적으로 댐의 용수 공급량을 조정하고 있다. 또 일부 도서·산간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비상 급수를 실시 중이다. 인천 중구·옹진, 전남 진도·완도·화순, 경북 안동, 경남 통영 등 7개 지역 9922세대 1만7916명이 용수공급 제한 및 운반급수를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용수 확보, 물 수요, 물 절약 홍보 등 크게 3가지 대책으로 나눠 보다 세밀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용수 확보를 위해 댐과 저수지 간 연계 운영을 확대하고 광주 동북댐 대체용수 개발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보성강댐과 농업용 저수지(수양계) 용수를 주암댐과 평립댐에 각각 저류해 활용하고, 주암댐에서 목포시로 공급하는 용수 일부를 장흥댐에서 대체 공급하기로 했다. 주암댐과 동북댐의 연계 운영은 강화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대체수원을 추가로 검토한다. 영산강 하천수 취수 비상 관로 신설(3만 5000~10만m<sup>3</sup>/일), 취수량 확보를 위한 지하수

관정 개발(2만8000m<sup>3</sup>/일), 동북댐 저수위 물 활용·공급(최대 400만m<sup>3</sup>)을 하는 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또 도서 지역의 식수 공급원을 다양화한다. 완도군에 주간 6만2000병의 병물을 지원하고 소안도에는 하루 300t 규모의 해수담수화 선박을 투입한다. 신안군 하태·대도도와 완도군 모도에는 해수담수화 설비를 설치하고 신안군 내 저수율 70% 미만의 저수지에는 생활용수를 공급한다. 영농 대비 농업용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년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인 118

억원을 조기 지원한다. 농업용수가 많이 필요한 시기인 4월 말 저수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수지에 대해 하천수 양수를 통한 물 채우기를 하고, 전남 나주·담양·장성·광주호 4대 저수지의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해 용수를 비축한다. 물 수요 대책의 일환으로 광주와 전남도에 절감 목표 달성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 참여를 요청한다. 광주시의 물 절약 수용가 요금감면제도는 전남 시·군에도 확대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여수·광양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공장 정비

시기를 조정하고 냉각수 등을 재활용하는 등 공업용수 절감을 독려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보유한 해수담수화시설도 최대한 활용한다. 산불 진화 용수로 저수율이 낮은 댐·저수지 물은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훈련 시 물 사용량을 최소화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겨울철은 강수량이 적어 남부 지방의 가뭄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지방과 협력해 용수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눈이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을 찾은 여행객들이 눈을 피하고 있다.

## 못믿을 백내장 수술비... ‘33만원 vs 900만원’ 27배 격차

“중점 관리 필요한 비급여 선정...정보 제고 질 높일 것”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됐고 22.9%가 인하했다. 다만 2022년 11월 물가 상승률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한 비율은 14.9%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을 과 기관 간 편차를 보면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렌즈는 평균 금액 4.1% 인상했고 중간금액은 180만원이다. 단 동일한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에 대해 부산의 A의원은 33만원, 인천의 B의원은 900만원을 받아 27배의 차이를 보였다.

도수치료의 경우 평균 금액 4.9% 인상, 중간 금액은 10만원이고 최고액을 받는 곳은 50만원이었다. 비벌브재건술은 평균 금액 0.9% 인상, 중간 금액 160만원이었고 최고액은 20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제도가 소비자 알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방주사처럼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현행 가격 중심 공개 방식을 유지하고,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

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 등의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그동안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빛4호기를 더욱 더! 안전하게 운전하겠습니다



한빛4호기 격납건물 공극 발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내외 전문기관을 통해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발견된 공극은 완벽하게 보수하였습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앞으로 안전한 원전 운영으로 지역경제와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